

“‘거울도 안보냐’ 던 어머니 덕에 지금의 내가 있어요”

인기만발 불자 탤런트 전원주 씨

150cm의 작은 키에 아담한 체구를 가진 탤런트 전원주(73) 씨는 의모와는 상반되는 특유의 호탕한 웃음소리로 제2, 제3의 전성기를 맞으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 KBS를에 자리한 한 커피숍에서 아침 방송을 마치고 나온 그녀를 만났다. 신문을 보고 있던 그녀의 모습은 멀리서도 한 눈에 들어왔다.

노년의 연기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간간하고 위엄 있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커피 드실래요?”라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모습은 영락없이 손자를 챙겨주는 인자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시골벽적인 커피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또렷 또렷하게 들렸다. 나이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해 보인다고 말하자, 전원주 씨는 “너무 건강해서 탈이다”라고 한숨을 푹 내신다.

“내 나이가 올해 73세예요. 다행히 아직까지 특별히 아프거나 그러질 않아요. 건강에는 자신이 있죠.”

특히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고 묻자, “잠 잘 자고, 소식하고, 채식을 많이 한다. 또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며 기분 나쁜 건 빨리 잊는 편이다. 가장 중요한 건 바쁘게 움직이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늘도 아침 방송 때문에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어요. 남편 아침 차려주고 화장하고 집에서 6시 30분쯤에 나왔지요. 아침에 운전하고 방송국을 향하면서 항상 기도를 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시고, 바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바르고 좋은 일 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꼭 말해요. 그게 저의 하루 중 첫 일과입니다.”

전원주 씨는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매니저 없이 직접 운전하며 활동하고 있다. 노배우가 매니저 없이 활동하는 게 불편할 법도 하지만 그는 혼자서 다니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지방 행사는 거의 KTX를 이용하고, 가끔 강의를 나갈 때에는 주최 측에서 차량을 보내주시기도 해요. 서울 근교는 제가 운전을 해서 다니고, 시내에 일이 있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에요.”

대표 ‘잔순이’로도 알려진 그는 택시를 타려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멈칫’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젠 제법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지만, 써버릇하지 않아서인지 익숙하지 않다고 했다.

“그냥 기계에다가 카드만 한 번 찍으면 되는데, 남들 다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을 저라고 못 탈 이유도 없죠.”

방송을 마친 전원주 씨는 오후에 연극 연습실로 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극 ‘모정의 세월’에 출연 중인 전원주 씨는 용산 완도 목포 안성 포천까지 전국 15~16개 도시의 순회공연을 계획 중이다. 이번 연극에서 시어머니 역할을 맡은 전원주 씨는 “나는 매번 역할을 해도 꼭 못된 시어머니 역할

만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지만, 연극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의 눈빛은 180도 달라졌다. 어릴 적부터 연기자가 꿈이었다는 그녀는 어린 시절 매일 혼자 거울을 보며 울고, 웃고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어머니한테 정말 많이 혼났어요. 어머니는 매일 저한테 ‘커서 뭐가 될 지 걱정이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끼를 주체하질 못했어요. 특히 혼날 때에 고개를 숙이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혼나야 되는데, 화났을 때의 어머니 표정을 보느라 항상 얼굴을 차켜두고 있어서 어머니한테 더 맞았죠. 사람들이 화났을 때, 기쁠 때, 슬플 때의 표정을 보고 ‘저 표정은 어디다 써먹을까’하고 고민했거든요. 매일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표정 연습을 했죠.”

전원주 씨의 모친이 그를 교사로 만들려고 했던 일화는 이미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소개가 됐을 정도로 유명하다. 전원주 씨는 6남매의 장녀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첫 딸이 잘 풀려야 집안이 잘 풀린다고 생각해,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전원주 씨를 대학까지 모두 마치게 했다.

불자 어머니 덕에 부처님과 인연 맺어 “오로지 연기 만이 최대의 관심사”일 뿐

“처음 연기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의 반대는 말도 못했어. 당시에 연기자는 ‘판따라’라고 해서 천한 직업이라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으니 간판이라도 좋아야 한다고 저를 대학까지 보내냈는데, 느닷없이 연기자가 되겠다고 하니 어땠겠어요. 그땐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라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죠. 어릴 적에도 제가 거울 앞에서 연기 연습을 하고 있으면 ‘주제과와 좀 해라. 7층에서 떨어진 것 같이 생겨갖고, 거울 좀 보고 살라’며 구박만 하셨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맞나’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는 어머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연기자가 됐지만, 연기자가 되고 나서도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어머니를 별 면목이 더 없었다고 했다. 정식 연기자 수업을 받아본 적 없이, 오직 꿈을 향해 달려온 그는 현실의 벽 앞에서 매일 눈물을 삼켜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연기 생활을 하며 힘들어 할 때, 가장 위로를 준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다. 그러나 결국 어머니는 전원주 씨의 전성기를 지켜보지 못했다.

“어머니는 개성 분이셨어요. 무일푼으로 처음 서울에 내려와 노점상에서부터 안 해 본 일이 없으세요. 그러다 동대문에서 조그만 가게를 여셨고, 나중에는 큰 상점을 운영하셨어요. 어머니는 독실한 불자셨는데, 노점상을 하시면서도 매일 같이 절에 나가셨어요. 어머니는 그때 저에게 ‘원주야 조그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올거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한 달에 한번은 꼭 절에 가고

〈전수경〉을 항상 외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불신했죠. ‘좋은 일이 안 생기는 데 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러냐’고 어머니한테 대든 적도 있었어요. 그땐 제 마음이 약했을 때예요.”

그의 불교 인연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됐다. 매일 새벽이 되면 그의 어머니는 어린 전원주를 손을 잡고 절에 갔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전수경〉을 외우게 했다. 전원주 씨는 “지금도 〈반야심경〉은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 중간에 얼버무린다. 하지만 어머니 덕에 〈전수경〉은 제대로 외우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어머니가 청룡사 신도회장을 하셨어요. 절에 불사도 많이 하셨죠. 우물쭈인 청룡사에 수도도 났드리고, 지금 파주 낙원 공원에 어머니가 거의 일구신 거세요. 어머니를 지금 그 곳에 모셨는데, 돌이켜 보니 어머니가 정말 큰일을 많이 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공덕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원주 씨는 지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불자로 만들어서 ‘참고 기다리면 복이온다’고 가르쳐준 어머니와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했다.

전원주 씨는 점차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되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비우는 법을 알게 됐다고 했다. 전원주 씨는 친한 동료인 선우영녀와故 여운계 씨와도 불교인연을 맺고 남다른 우정을 과시해 왔다.

“그 친구는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친구였는데, 그렇게 착한 사람도 나보다 먼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더 많이 베풀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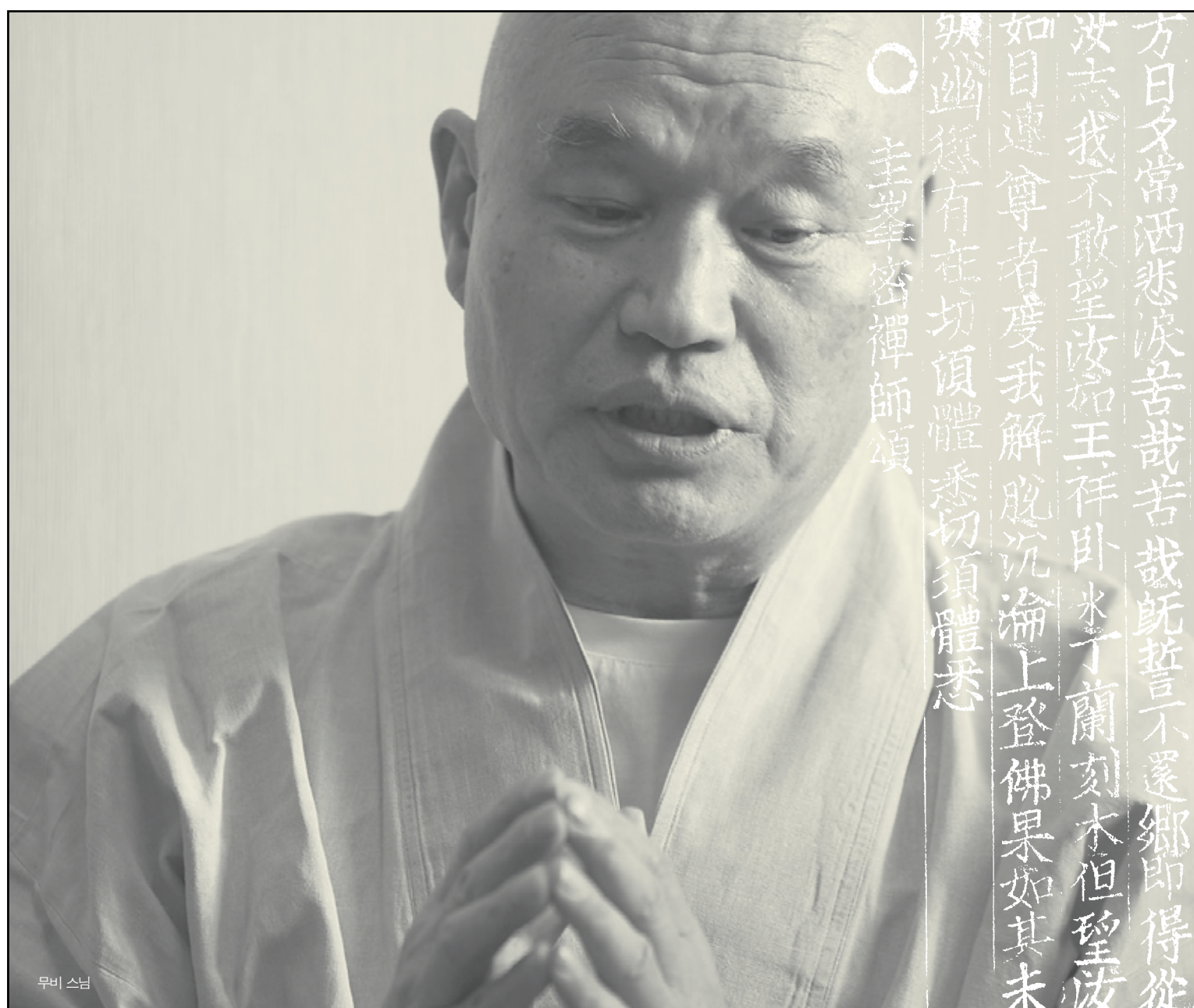
항상 유쾌한 웃음으로 시청자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전원주 씨는 아직까지도 연기자 본연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았다. 지금도 자신이 돌아갈 곳, 해야 할 일은 단연 ‘연기’라고 거침없이 말했다. 돈 쓰는 것도, 다른 취미 생활도 전혀 없다는 그녀는 오로지 ‘연기’만이 자신의 관심사라고 말했다. 아직도 무대에 서는 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행복하단다.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세간의 풍문에 대해서는 “정치엔 전혀 관심 없다. 내가 할 일은 연기뿐이다”고 해명했다.

“남편이 이제 나이도 많으니 마지막 생을 자신과 함께 여행하면서 보내자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제게 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기회는 두 번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해요. 지금도 연기를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오로지 연기로 풀거든요. 사실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니 고정된 이미지 때문에 드라마 섭외가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바람 핀 남편이 나중에 본처를 생각하듯, 결국 제가 돌아갈 곳은 드라마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글=이은정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부처님 법으로 마음 비우고,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하고 싶다고 밝힌 불자 탤런트 전원주



무비 스님 직지 강설 출판기념회

일시 2011. 10. 28(수) 14:00 | 장소 부산 금정산범어사설법전 | 주최 무비 스님 제자 모임 (7년, 051-508-3122)

直指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선불교 최고의 교과서 「직지」강설

“팔만대장경과 모든 조사 어록의 요점만을 집약한 안고의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인체문학유산으로서의 가치 이상으로는 보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이에 문화유산의 가치보다도 천만 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인류의 정신을 구제할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부족하나마 강설을 시도해 보았다.” - 무비 스님 머리말 중에서

「직지」의 원제목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다. 백운 화상이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이 바로 거리켜 준 마음을 깨닫는 중요한 가르침을 가려 뽑음이라는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 이 책은 선불교 최고의 교과서이다. 무비 스님은 직지 강설을 통해 선불교의 핵심을 꿰뚫어 보여준다. 무비 스님이 늘 강조하는 인본사상^{***}은,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가르침이 곧 선불교의 핵심임을 천명하고 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알아치르면 그대로 깨달은 존재, 사람이 부처님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다.

▶ 불광출판사에서 펴낸 무비 스님 책들

- 신강경강설
- 법화경강설
- 지장경강설
- 해심경강설
- 금강경강설
- 망계대장경
- 사명이 부처님이다
- 말씀 밖의 책방인사